

 <b>해양수산부</b>		<b>보 도 자 료</b>		
		<b>배포 일시</b>	<b>2019. 1. 24.(목)</b> <b>총 4매(본문 2, 참고 2)</b>	
<b>담당 부서</b>	해양개발과	<b>담당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장 오행록, 팀장 신선호, 사무관 이경환, 김정희</li> <li>• ☎ (044) 200-5240, 6181, 6182, 6184</li> </ul>	
	극지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협력부장 신형철, 팀장 이지영, 행정원 강민구</li> <li>극지인프라운영부장 신민철, 기지지원팀장 이형근</li> <li>• ☎ (032) 770-8430, 8630, 8631/8500, 8510</li> </ul>	
<b>보 도 일 시</b>		<b>배포 즉시 보도 가능</b>		

## 아라온호 중국측 남극기지 건설중 고립된 인력 24명 철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남극에 고립되어 있던 중국 기지 건설 조사단 24명의 철수 지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 Inexpressible섬에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 중이던 중국 신규기지 건설 조사단 24명은 중국 쇄빙선 설롱호를 통해 철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설롱호가 빙산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박 안전점검을 위해 중국측의 다른 남극기지인 장성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으로 회항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사단 일행은 Inexpressible섬에 고립되게 되었다.

현재 중국기지 건설 현장에는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어 혹한의 추위를 견디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보유 중인 생필품으로는 2월 초까지만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 여름인 남극은 활주로로 사용하던 해빙(海氷)이 녹아서 비행기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다른 선박을 찾아서 투입하기까지는 1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라온호 이외의 대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인근 해역인 로스해에서 연구활동을 수행 중이던 아라온호는 건설 조사단 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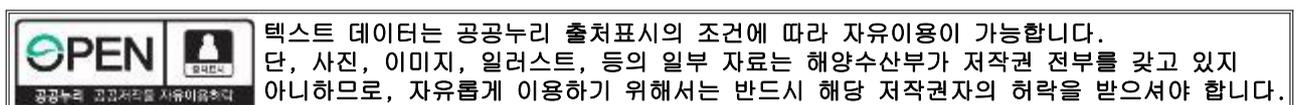
지원을 위해 한국시각으로 21일 Inexpressible섬으로 출발하였다.

현장에는 별도의 접안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라온호는 23일 중국기지에서부터 약 700m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장보고과학기지에 있는 우리측 헬기를 이용하여 중국기지에 체류 중인 24명을 아라온호까지 이송하였다.

중국측 조사단 등을 태운 아라온호는 오는 2월 4일 뉴질랜드 리틀톤항에 도착함으로써 중국 신규기지 건설 조사단의 철수 지원을 마무리한 뒤 2월 9일 기지 보급과 하계 연구활동을 마친 우리측 대원 48명의 철수를 위해 뉴질랜드에서 다시 장보고기지로 출항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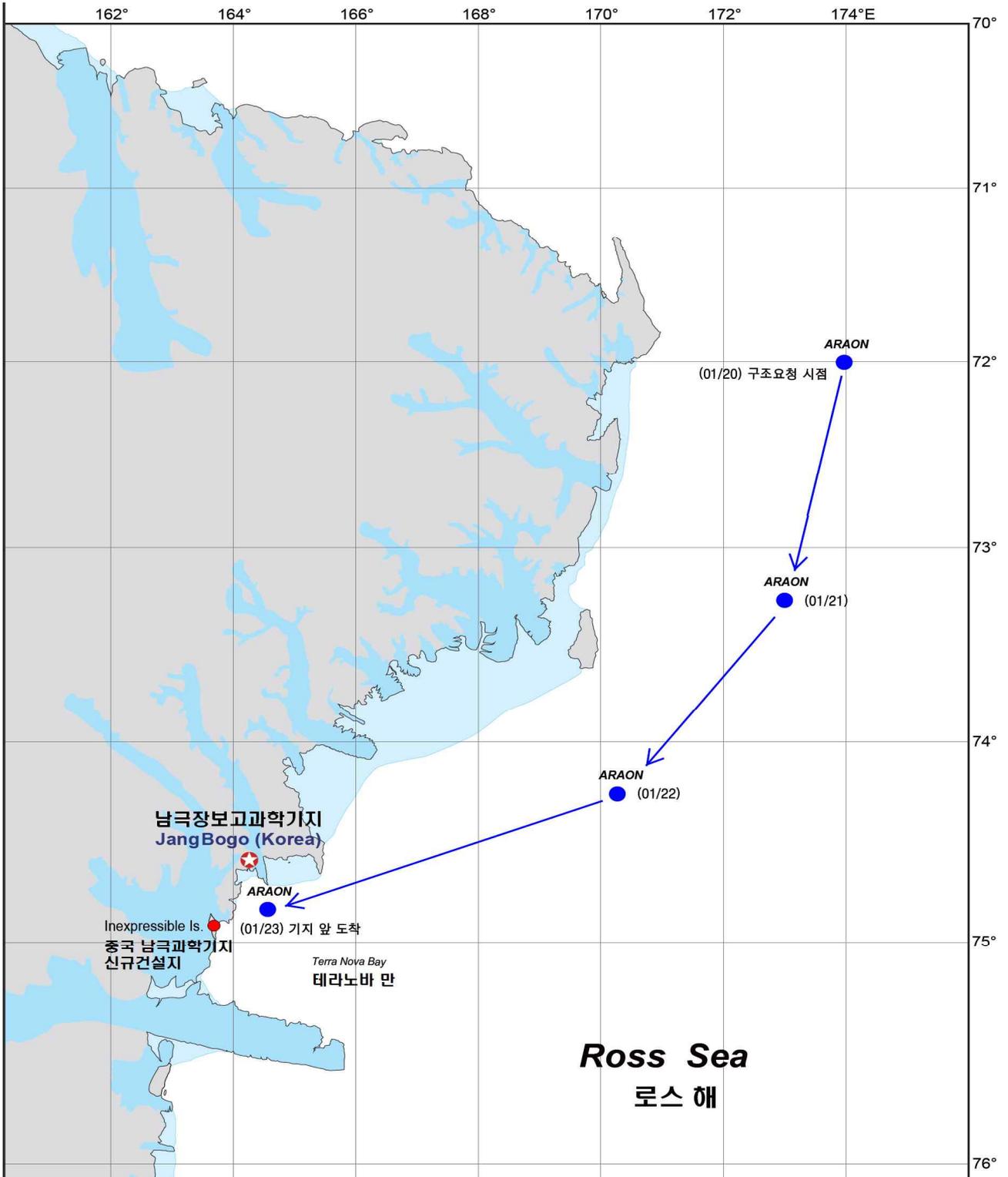
2009년 건조이후 올해로 10년째 남·북극을 오가며 기지 보급과 연구활동을 수행중인 아라온호는 지난 2011년에는 빙하에 부딪혀 조난당한 러시아 어선 '스파르타호'를 구조하고, 2012년과 2015년에는 우리나라 어선인 정우2호와 썬스타호의 구조활동을 수행하였다.

한기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원으로 앞으로 건설될 중국의 신규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간 보급 지원과 연구활동 등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극지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안전매뉴얼 점검 등 사고 예방과 아라온호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아라온호 이동 경로**



- ※ 파란색 표기 지점 ● 아라온호 이동경로
- 붉은색 별표 지점 ☆ 남극장보고과학기지
- 붉은색 표기 지점 ● 중국측 기지조사단 체류지역(Inexpressible Island)

## 참고 2

## 아라온호 구조활동 현황

선박명	구조일시	장소	주요 내용
스파르타호 (러시아, 500톤급 어선)	'11.12.18. ~28.	남극 로스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빙하에 부딪혀 선체 일부 파손된 채 조난</li> <li>· 뉴질랜드에 있던 아라온호가 긴급 출항해 선원 32명 전원을 구조하고 파손 부위 수리를 지원. 유빙이 없는 지역까지 예인 후 스파르타호의 자매선인 치요마루호에 인도</li> </ul>
정우2호 (대한민국, 500톤급 어선)	'12.1.12.	남극 로스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인불명의 선상 화재 발생으로, 선원 40명 중 3명 실종, 7명 부상</li> <li>· 구조자 30명은 함께 조업하던 '정우 3호'로 긴급 탈출 후, 아라온호가 인계받아 뉴질랜드로 이송</li> </ul>
썬스타호 (대한민국, 628톤 어선)	'15.12.19.	남극 로스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칠레에서 남극해로 향하다 유빙에 갇혀 조난</li> <li>· 130마일 떨어져 항해 중인 아라온호가 현장에 도착해 주변 유빙을 제거하고 안전지대로 예인</li> </ul>



<'11.12. 러 스파르타호 구조>



<'12.1. 정우2호 구조>



<'15.12. 썬스타호 구조>